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조중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90호 [루체 제25964호] 주제 107 (2018)년 3월 31일 (토요일)

당의 령도 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 있는 국제올림픽 위원회 위원장을 접견 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 있는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과 그 일행을 접견 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과 그 일행을 접견 하시였다.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봉해 동지와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이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휘동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이며 체육상인 김일국동지를 비롯한 간부들이 여기에 함께 참가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과 반갑게 상봉하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토마스 바흐 위원장의 우리 나라 방문을 열렬히 환영하시고 따뜻하고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하시였다.

석상에서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은 분명한 국내외정치일정속에서도 자기들을 친절히 초청하여주시고 귀중한 시간을 내시여 만나주신데 대해 감사의 인사를 드리였다.

그는 자기들의 이번 평양방문목적은 제23차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가 평화의 올림픽경기대회로, 성공적인 올림픽경기대회로 진행되도록 커다란 공원을 하신 존경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동지께 가장 충심으로 되는 사의를 표하기 위해서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제23차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에서 올림픽의 리념에 맞게 북남선수단이 공동 입장하고 올림픽역사상 처음으로 단일팀을 구성하고 출전함으로써 북파 남의 평화와 화해의 의지를 전 세계에 보여주었으며 최대의 감동을 불러일으킨 올림픽으로 되었다고 자기의 심정을 펴력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2020년 도쿄올림픽경기대회와 2022년 베이징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 참가준비를 장기적으로 협조하며 올림픽연단을 비롯한 국제체육무대를 적극 활용하여 조선의 체육발전에 힘껏 기여할 의지를 표명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이에 사의를 표하시고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우리 선수들의 제23차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 참가에 특별한 관심을 돌리고 규정과 판례를 초월하여 특례적인 조치들을 취하면서 적극 협력하여준데 대하여

매우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이번 올림픽 경기대회는 올림픽으로서도 성공하였을뿐 아니라 북파 남의 세로운 화합의 장을 마련한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올림픽이었다고 하시면서 열어 블었던 북남관계가 올림픽을 계기로 극적인 해빙기를 맞이 할수 있은것은 전적으로 그 기회를 제공하여주고 길을 열어준 국제올림픽위원회의 공로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지금까지 그 어떤 정치적 환경과 조건에도 구애되지 않고 우리에 대한 협조를 성의껏 해준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하시면서 앞으로도 우리 올림픽위원회와 국제올림픽위원회 사이에 존재하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협력관계가 계속 좋게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에게 우리 나라의 체육정책과 그 전망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겨울철체육종목을 비롯한 여러 체육종목들을 세계적 추세에 맞게 더욱 발전시키고 추켜세우는데서 국제올림픽위원회와의 진밀한 협력과 훌륭한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토마스 바흐 위원장이 우리 나라에 벗으로 자주 오길 바란다고 따뜻이 초청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이 날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일행과 함께 국가녀자축구 종합팀과 평양체육단 여자축구팀 사이의 축구경기를 보시였다.

본사정치보도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 선물을 보내여왔다

《김정은 최고령도자 첫 외국방문으로 중국을 방문》

여러나라에서 일제히 보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중화인민공화국을 비공식방문하신 소식을 28일과 29일 여타 나라에서 일제히 보도하였다.

중국의 신화통신은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정은령도자께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이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이며 조선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인 습근평의 초청으로 3월 25일부터 28일까지 중국을 출판보도물을 통해 널리 가 20일에 결성되었다.

준비위원회 위원회는 3월 15일부터 4월 15일까지 경축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기간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생애와 업적을 칭송하는 다양한 행사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준비위원회 위원회는 3월 21일부터 4월 15일까지 경축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준비위원회 위원회는 3월 21일부터 4월 16일까지 경축기간으로 정하고 기록하였다.

준비위원회 위원회는 3월 21일부터 4월 16일까지 경축기간으로 정하고 기록하였다.

준비위원회 위원회는 3월 21일부터 4월 16일까지 경축기간으로 정하고 기록하였다.

준비위원회 위원회는 3월 21일부터 4월 16일까지 경축기간으로 정하고 기록하였다.

준비위원회 위원회는 3월 21일부터 4월 16일까지 경축기간으로 정하고 기록하였다.

준비위원회 위원회는 3월 21일부터 4월 16일까지 경축기간으로 정하고 기록하였다.

준비위원회 위원회는 3월 21일부터 4월 16일까지 경축기간으로 정하고 기록하였다.

준비위원회 위원회는 3월 21일부터 4월 16일까지 경축기간으로 정하고 기록하였다.

준비위원회 위원회는 3월 21일부터 4월 16일까지 경축기간으로 정하고 기록하였다.

준비위원회 위원회는 3월 21일부터 4월 16일까지 경축기간으로 정하고 기록하였다.

준비위원회 위원회는 3월 21일부터 4월 16일까지 경축기간으로 정하고 기록하였다.

준비위원회 위원회는 3월 21일부터 4월 16일까지 경축기간으로 정하고 기록하였다.

준비위원회 위원회는 3월 21일부터 4월 16일까지 경축기간으로 정하고 기록하였다.

준비위원회 위원회는 3월 21일부터 4월 16일까지 경축기간으로 정하고 기록하였다.

준비위원회 위원회는 3월 21일부터 4월 16일까지 경축기간으로 정하고 기록하였다.

준비위원회 위원회는 3월 21일부터 4월 16일까지 경축기간으로 정하고 기록하였다.

준비위원회 위원회는 3월 21일부터 4월 16일까지 경축기간으로 정하고 기록하였다.

준비위원회 위원회는 3월 21일부터 4월 16일까지 경축기간으로 정하고 기록하였다.

준비위원회 위원회는 3월 21일부터 4월 16일까지 경축기간으로 정하고 기록하였다.

준비위원회 위원회는 3월 21일부터 4월 16일까지 경축기간으로 정하고 기록하였다.

준비위원회 위원회는 3월 21일부터 4월 16일까지 경축기간으로 정하고 기록하였다.

준비위원회 위원회는 3월 21일부터 4월 16일까지 경축기간으로 정하고 기록하였다.

준비위원회 위원회는 3월 21일부터 4월 16일까지 경축기간으로 정하고 기록하였다.

준비위원회 위원회는 3월 21일부터 4월 16일까지 경축기간으로 정하고 기록하였다.

준비위원회 위원회는 3월 21일부터 4월 16일까지 경축기간으로 정하고 기록하였다.

준비위원회 위원회는 3월 21일부터 4월 16일까지 경축기간으로 정하고 기록하였다.

준비위원회 위원회는 3월 21일부터 4월 16일까지 경축기간으로 정하고 기록하였다.

준비위원회 위원회는 3월 21일부터 4월 16일까지 경축기간으로 정하고 기록하였다.

준비위원회 위원회는 3월 21일부터 4월 16일까지 경축기간으로 정하고 기록하였다.

준비위원회 위원회는 3월 21일부터 4월 16일까지 경축기간으로 정하고 기록하였다.

준비위원회 위원회는 3월 21일부터 4월 16일까지 경축기간으로 정하고 기록하였다.

준비위원회 위원회는 3월 21일부터 4월 16일까지 경축기간으로 정하고 기록하였다.

준비위원회 위원회는 3월 21일부터 4월 16일까지 경축기간으로 정하고 기록하였다.

준비위원회 위원회는 3월 21일부터 4월 16일까지 경축기간으로 정하고 기록하였다.

준비위원회 위원회는 3월 21일부터 4월 16일까지 경축기간으로 정하고 기록하였다.

준비위원회 위원회는 3월 21일부터 4월 16일까지 경축기간으로 정하고 기록하였다.

준비위원회 위원회는 3월 21일부터 4월 16일까지 경축기간으로 정하고 기록하였다.

준비위원회 위원회는 3월 21일부터 4월 16일까지 경축기간으로 정하고 기록하였다.

준비위원회 위원회는 3월 21일부터 4월 16일까지 경축기간으로 정하고 기록하였다.

준비위원회 위원회는 3월 21일부터 4월 16일까지 경축기간으로 정하고 기록하였다.

준비위원회 위원회는 3월 21일부터 4월 16일까지 경축기간으로 정하고 기록하였다.

준비위원회 위원회는 3월 21일부터 4월 16일까지 경축기간으로 정하고 기록하였다.

준비위원회 위원회는 3월 21일부터 4월 16일까지 경축기간으로 정하고 기록하였다.

준비위원회 위원회는 3월 21일부터 4월 16일까지 경축기간으로 정하고 기록하였다.

준비위원회 위원회는 3월 21일부터 4월 16일까지 경축기간으로 정하고 기록하였다.

준비위원회 위원회는 3월 21일부터 4월 16일까지 경축기간으로 정하고 기록하였다.

준비위원회 위원회는 3월 21일부터 4월 16일까지 경축기간으로 정하고 기록하였다.

준비위원회 위원회는 3월 21일부터 4월 16일까지 경축기간으로 정하고 기록하였다.

준비위원회 위원회는 3월 21일부터 4월 16일까지 경축기간으로 정하고 기록하였다.

준비위원회 위원회는 3월 21일부터 4월 16일까지 경축기간으로 정하고 기록하였다.

준비위원회 위원회는 3월 21일부터 4월 16일까지 경축기간으로 정하고 기록하였다.

준비위원회 위원회는 3월 21일부터 4월 16일까지 경축기간으로 정하고 기록하였다.

준비위원회 위원회는 3월 21일부터 4월 16일까지 경축기간으로 정하고 기록하였다.

준비위원회 위원회는 3월 21일부터 4월 16일까지 경축기간으로 정하고 기록하였다.

준비위원회 위원회는 3월 21일부터 4월 16일까지 경축기간으로 정하고 기록하였다.

준비위원회 위원회는 3월 21일부터 4월 16일까지 경축기간으로 정하고 기록하였다.

준비위원회 위원회는 3월 21일부터 4월 16일까지 경축기간으로 정하고 기록하였다.

준비위원회 위원회는 3월 21일부터 4월 16일까지 경축기간으로 정하고 기록하였다.

준비위원회 위원회는 3월 21일부터 4월 16일까지 경축기간으로 정하고 기록하였다.

준비위원회 위원회는 3월 21일부터 4월 16일까지 경축기간으로 정하고 기록하였다.

준비위원회 위원회는 3월 21일부터 4월 16일까지 경축기간으로 정하고 기록하였다.

준비위원회 위원회는 3월 21일부터 4월 16일까지 경축기간으로 정하고 기록하였다.

준비위원회 위원회는 3월 21일부터 4월 16일까지 경축기간으로 정하고 기록하였다.

준비위원회 위원회는 3월 21일부터 4월 16일까지 경축기간으로 정하고 기록하였다.

준비위원회 위원회는 3월 21일부터 4월 16일까지 경축기간으로 정하고 기록하였다.

준비위원회 위원회는 3월 21일부터 4월 16일까지 경축기간으로 정하고 기록하였다.

준비위원회 위원회는 3월 21일부터 4월 16일까지 경축기간으로 정하고 기록하였다.

준비위원회 위원회는 3월 21일부터 4월 16일까지 경축기간으로 정하고 기록하였다.

준비위원회 위원회는 3월 21일부터 4월 16일까지 경축기간으로 정하고 기록하였다.

준비위원회 위원회는 3월 21일부터 4월 16일까지 경축기간으로 정하고 기록하였다.

준비위원회 위원회는 3월 21일부터 4월 16일까지 경축기간으로 정하고 기록하였다.

준비위원회 위원회는 3월 21일부터 4월 16일까지 경축기간으로 정하고 기록하였다.

준비위원회 위원회는 3월 21일부터 4월 16일까지 경축기간으로 정하고 기록하였다.

보건일군들은 뜨거운 정성으로 인민사랑의 대화원을 아름답게 꽂피우자

세상에 둘도 없는 우리의 사회주의보건제도

류 경 치 과 병 원 에

온 수 많 은

편 지 들 을 읽 고

나 사회주의보건제도의 고마움

을

다

시

나

되

었

다

고

되

었

다

고

되

었

다

고

되

었

다

고

되

었

다

고

되

었

다

고

되

었

다

고

되

었

다

고

되

었

다

고

되

었

다

고

되

었

다

고

되

었

다

고

되

었

다

고

되

었

다

고

되

었

다

고

되

었

다

고

되

었

다

고

되

었

다

고

되

었

다

고

되

었

다

고

되

었

다

고

되

었

다

고

되

었

다

고

되

었

다

고

되

었

다

고

되

었

다

고

되

었

다

고

되

었

다

고

되

었

다

고

되

었

다

고

되

었

다

고

되

었

다

고

되

었

다

고

되

었

다

고

되

었

다

고

되

었

다

고

되

었

다

고

되

었

다

고

되

었

다

고

되

었

다

고

되

었

다

고

되

었

다

고

되

었

다

고

되

었

다

고

되

었

다

고

되

었

다

고

되

었

다

고

되

었

다

고

되

었

다

고

모두가 사회주의애국공로자들처럼 살며 투쟁하자!

글지의 대규모 탄전이 사랑하는 제대군인 탄부

2.8 직동 청년 탄광

12 쟁 채 탄 1 중 대 장 현 경 진 동 무

위대한 병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우리 나라에는 한생을 웃은일, 마름일을 가리지 않고 오로지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진심을 바쳐 성실하게 일하며 인진 섭이나 심심산골에서 누가 알아주면 발견되는 학문을 애국자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주인공이 찍어간 발자국을 더듬으면 2.8 직동청년 탄광 12경 제대군인의 막강한 고결한 정신세계에 대하여 다시금 깊이 생각해보게 하였다.

김 일성 훈장을 수여 받은 2.8 직동청년 탄광에서는 당시의 사랑과 은정 속에 시대의 전형으로 영생의 언덕에 높이 오른 김유봉용을 비롯하여 수많은 영웅들의 흔적을 뿌리고 있다.

바로 그 빛나는 삶들과 더불어 오늘 또 한명의 시대의 선구자가 배출되어 자랑을 떨치고 있다.

이름은 현경진, 나이는 48살, 어느 탄광에나 있는 탄부이고 체탄중대장인 그의 삶을 우리 당은 어찌하여 그토록 값높이 내세워주는가.

제대 병사의 맹세와 실천

현경진동무가 탄광에 대체 배당을 풀어놓은 것은 주제 88(1999)년 9월이었다.

가자 탄광으로! 어머니수령님의 뜻대로 탄부가 되어 석탄증산으로 위대한 장군님을 밟들고 날아기워온 어머니조국의 부강번영에 이바지하라!

이런 불리는 지향을 알고 그는 수많은 제대 군인들과 함께 2.8 직동청년 탄광으로 달려왔다.

개천시의 어느 한 동촌에서 나오는 석탄은 장거리 렌트콘

이에 미리지어졌다.

그는 탄광에 실장과 함께 탄광으로 달려온 것이다. 그는 탄광에 실장과 함께 탄광으로 달려온 것이다.

이 맹세를 실장속깊이 간직하고 그는 탄광으로 달려온 것이다. 그는 탄광으로 달려온 것이다.

대조선《인권》소동은 적대시정책의 집중적 표현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우리에 대한 압박소통에 계속 빼여들리면서 각방으로 비렬하게 날뛰고 있다. 암만적인 반공화국제 재소통에 팽팽한 한편 우리 국가의《인권상황》에 대하여 날조선전을 하고 있다.

혹백을 진도하며 당시에는《인권문제》를 여론화함으로써 저들의 대 결소동을 험화해보자는 것이다.

미국은 반공화국《인권》소동에 신빙성을 부여해보려고 제도에 어울리지 않는 유치한짓도 꾼다 한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반공화국《인권》모탁소동은 존엄높은 우리 공화국의 권위를 쿠션하고 우리 사상과 제도를 부인하는 유탑을 확장해 행위이다.

위대한 주체사상이 밝힌 사람중심의 세계관에 기초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적지향과 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 그 실현을 국가활동의 최고원칙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회주의제도이다. 국가의 법적권익 보호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를 차단해 보장되고 인민대중의 창조적인 열의와 헌신적투쟁에 의해 더욱 발전하는 것이 우리 공화국이다.

미국이 우리 공화국을 걸고들며 떠들어는《인권문제》는 주악한 인간쓰레기들을 부추겨 조작해낸 실로 황당무계하게 짚어놓았던 것이다. 미국이 체면마자 대개 치고 국회 청문회장에까지 내세우며 반공화국모탁소동에 내몰고 있는 자들은 하나같이 부모처자와 고향을 등지고 조국과 인민앞에 죄를 짓고 도주한 인간들이다.

몇 문의 돈에 매수되어 인간의 모든 것

을 팔아먹고 이를과 경쟁까지 위조하며

이것이 기본주의가 훈내릴수도 없는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 사회주의의 우월성이고 우리 사상의 위력이며 우리 민족이 행사하는 자주적권리이다.

지금 우리 나에서는 거의 병도일에 인민사수전, 인민부전의 숭고한 투쟁이 풀려가고 있다.

세계 그 어디에서도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대화원이 현실로 펼쳐져 고 있는 나라를 찾을수 없다.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제도인 우리

공화국에는《인권문제》라는 것이 존재 할 수 없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우리 공화국의 있지도 않고 있을수도 없는《인권문제》에 대하여 이려 터져서 터져 시비질을 하는 것은 우리의 사상과 제도에 대한 악랄한 도전인 동시에 참마다 인권에 대한 부정이다.

상대방의 사상과 제도에 대한 부정은 가장 악랄한 적대행위이며 침략적인 대결방식이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반공화국《인권》소동은 허위와 날조로 일관된 특동사

리를 풀어놓고 있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유엔 무대에서 꾸며내는《인권 보고서》라는 것도,《인권 결의》라는 것도 모두 이런 혐잡꾼, 인간 오작물들의 나발을 《증언》이라고 굽어 모아 조립한 것이다. 이러한 반공화국《인권》모탁소동이 암말로 국제사회를 우통하고 전정한 인권을 모독하는 특대형 치협집이 아닐수 없다.

버리지보다도 못한 인간쓰레기들에게

기대여 대조선적 대시정책 실행의 북통을 두드려야 하는 미국의 처지도 참으로 궁색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미국이 우리 공화국을 걸고들며 떠들어는《인권문제》는 주악한 인간쓰레기들을 부추겨 조작해낸 실로 황당무계하게 짚어놓았던 것이다. 미국이 체면마자 대개 치고 국회 청문회장에까지 내세우며 반공화국모탁소동에 내몰고 있는 자들은 하나같이 부모처자와 고향을 등지고 조국전권을 말살하기 위한 불법부법의 《제재 결의》들을 조작해낸 것이다. 부족하여 그 빙구멍을 메운다고 하면서 단독제재에 열을 물리고 있다. 우리 《제재회피시도》를 막고 공해상에서의 《불법거제》를 차단한다는 미명하에 해상봉쇄를 기어이 실현해 보려 하고 있다. 그것으로 우리를 《변화》시켜보려고 어리석게 획책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나 우리 공화국은 적대세력들의 온갖 도전을 단호히 쳐갈기며 즐기차게 앞으로 돌진하고 있다. 위대한 당의 두

리에 일심단결된 천만군민의 불굴의 기상 앞에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반공화국제재 암박소동은 맥을 추지 못하고

있다.

적대세력들의 부추김에 인간쓰레기들이 우리 공화국의 존엄높은 제제를 마구 훨씬하는 것은 단 하나, 버리지 같은 명들을 연명하기 위해서이다. 그때 문에 기자회견이나, 청문회니 하는데서 거짓증언을 하는가 하면 국제무대에까지 풀려나며 미국이 써준 각본대로 개소

되었던 것이다.

적대세력들의 부추김에 인간쓰레기들이 우리 공화국의 존엄높은 제제를 마구 훨씬하는 것은 단 하나, 버리지 같은 명들을 연명하기 위해서이다. 그때 문에 기자회견이나, 청문회니 하는데서 거짓증언을 하는가 하면 국제무대에까지 풀려나며 미국이 써준 각본대로 개소

되었던 것이다.

미국은 당시 알게 남을 걸고들지 말고 자기의 어지러운 고나 닦는것이 좋을것이다. 이것이 세상사람들이 미국에 주는 충고이다.

미국은 당시 알게 남을 걸고들지 말고 자기의 어지러운 고나 닦는것이 좋을것이다. 이것이 세상사람들이 미국에 주는 충고이다.

미국은 당시 알게 남을 걸고들지 말고 자기의 어지러운 고나 닦는것이 좋을것이다. 이것이 세상사람들이 미국에 주는 충고이다.

미국은 당시 알게 남을 걸고들지 말고 자기의 어지러운 고나 닦는것이 좋을것이다. 이것이 세상사람들이 미국에 주는 충고이다.

미국은 당시 알게 남을 걸고들지 말고 자기의 어지러운 고나 닦는것이 좋을것이다. 이것이 세상사람들이 미국에 주는 충고이다.

미국은 당시 알게 남을 걸고들지 말고 자기의 어지러운 고나 닦는것이 좋을것이다. 이것이 세상사람들이 미국에 주는 충고이다.

미국은 당시 알게 남을 걸고들지 말고 자기의 어지러운 고나 닦는것이 좋을것이다. 이것이 세상사람들이 미국에 주는 충고이다.

미국은 당시 알게 남을 걸고들지 말고 자기의 어지러운 고나 닦는것이 좋을것이다. 이것이 세상사람들이 미국에 주는 충고이다.

미국은 당시 알게 남을 걸고들지 말고 자기의 어지러운 고나 닦는것이 좋을것이다. 이것이 세상사람들이 미국에 주는 충고이다.

미국은 당시 알게 남을 걸고들지 말고 자기의 어지러운 고나 닦는것이 좋을것이다. 이것이 세상사람들이 미국에 주는 충고이다.

미국은 당시 알게 남을 걸고들지 말고 자기의 어지러운 고나 닦는것이 좋을것이다. 이것이 세상사람들이 미국에 주는 충고이다.

미국은 당시 알게 남을 걸고들지 말고 자기의 어지러운 고나 닦는것이 좋을것이다. 이것이 세상사람들이 미국에 주는 충고이다.

미국은 당시 알게 남을 걸고들지 말고 자기의 어지러운 고나 닦는것이 좋을것이다. 이것이 세상사람들이 미국에 주는 충고이다.

미국은 당시 알게 남을 걸고들지 말고 자기의 어지러운 고나 닦는것이 좋을것이다. 이것이 세상사람들이 미국에 주는 충고이다.

미국은 당시 알게 남을 걸고들지 말고 자기의 어지러운 고나 닦는것이 좋을것이다. 이것이 세상사람들이 미국에 주는 충고이다.

미국은 당시 알게 남을 걸고들지 말고 자기의 어지러운 고나 닦는것이 좋을것이다. 이것이 세상사람들이 미국에 주는 충고이다.

미국은 당시 알게 남을 걸고들지 말고 자기의 어지러운 고나 닦는것이 좋을것이다. 이것이 세상사람들이 미국에 주는 충고이다.

미국은 당시 알게 남을 걸고들지 말고 자기의 어지러운 고나 닦는것이 좋을것이다. 이것이 세상사람들이 미국에 주는 충고이다.

미국은 당시 알게 남을 걸고들지 말고 자기의 어지러운 고나 닦는것이 좋을것이다. 이것이 세상사람들이 미국에 주는 충고이다.

미국은 당시 알게 남을 걸고들지 말고 자기의 어지러운 고나 닦는것이 좋을것이다. 이것이 세상사람들이 미국에 주는 충고이다.

미국은 당시 알게 남을 걸고들지 말고 자기의 어지러운 고나 닦는것이 좋을것이다. 이것이 세상사람들이 미국에 주는 충고이다.

미국은 당시 알게 남을 걸고들지 말고 자기의 어지러운 고나 닦는것이 좋을것이다. 이것이 세상사람들이 미국에 주는 충고이다.

미국은 당시 알게 남을 걸고들지 말고 자기의 어지러운 고나 닦는것이 좋을것이다. 이것이 세상사람들이 미국에 주는 충고이다.

미국은 당시 알게 남을 걸고들지 말고 자기의 어지러운 고나 닦는것이 좋을것이다. 이것이 세상사람들이 미국에 주는 충고이다.

미국은 당시 알게 남을 걸고들지 말고 자기의 어지러운 고나 닦는것이 좋을것이다. 이것이 세상사람들이 미국에 주는 충고이다.

미국은 당시 알게 남을 걸고들지 말고 자기의 어지러운 고나 닦는것이 좋을것이다. 이것이 세상사람들이 미국에 주는 충고이다.

미국은 당시 알게 남을 걸고들지 말고 자기의 어지러운 고나 닦는것이 좋을것이다. 이것이 세상사람들이 미국에 주는 충고이다.

미국은 당시 알게 남을 걸고들지 말고 자기의 어지러운 고나 닦는것이 좋을것이다. 이것이 세상사람들이 미국에 주는 충고이다.

미국은 당시 알게 남을 걸고들지 말고 자기의 어지러운 고나 닦는것이 좋을것이다. 이것이 세상사람들이 미국에 주는 충고이다.

미국은 당시 알게 남을 걸고들지 말고 자기의 어지러운 고나 닦는것이 좋을것이다. 이것이 세상사람들이 미국에 주는 충고이다.

미국은 당시 알게 남을 걸고들지 말고 자기의 어지러운 고나 닦는것이 좋을것이다. 이것이 세상사람들이 미국에 주는 충고이다.

미국은 당시 알게 남을 걸고들지 말고 자기의 어지러운 고나 닦는것이 좋을것이다. 이것이 세상사람들이 미국에 주는 충고이다.

미국은 당시 알게 남을 걸고들지 말고 자기의 어지러운 고나 닦는것이 좋을것이다. 이것이 세상사람들이 미국에 주는 충고이다.

미국은 당시 알게 남을 걸고들지 말고 자기의 어지러운 고나 닦는것이 좋을것이다. 이것이 세상사람들이 미국에 주는 충고이다.

미국은 당시 알게 남을 걸고들지 말고 자기의 어지러운 고나 닦는것이 좋을것이다. 이것이 세상사람들이 미국에 주는 충고이다.

미국은 당시 알게 남을 걸고들지 말고 자기의 어지러운 고나 닦는것이 좋을것이다. 이것이 세상사람들이 미국에 주는 충고이다.

미국은 당시 알게 남을 걸고들지 말고 자기의 어지러운 고나 닦는것이 좋을것이다. 이것이 세상사람들이 미국에 주는 충고이다.

미국은 당시 알게 남을 걸고들지 말고 자기의 어지러운 고나 닦는것이 좋을것이다. 이것이 세상사람들이 미국에 주는 충고이다.

미국은 당시 알게 남을 걸고들지 말고 자기의 어지러운 고나 닦는것이 좋을것이다. 이것이 세상사람들이 미국에 주는 충고이다.

미국은 당시 알게 남을 걸고들지 말고 자기의 어지러운 고나 닦는것이 좋을것이다. 이것이 세상사람들이 미국에 주는 충고이다.

미국은 당시 알게 남을 걸고들지 말고 자기의 어지러운 고나 닦는것이 좋을것이다. 이것이 세상사람들이 미국에 주는 충고이다.

미국은 당시 알게 남을 걸고들지 말고 자기의 어지러운 고나 닦는것이 좋을것이다. 이것이 세상사람들이 미국에 주는 충고이다.

미국은 당시 알게 남을 걸고들지 말고 자기의 어지러운 고나 닦는것이 좋을것이다. 이것이 세상사람들이 미국에 주는 충고이다.

미국은 당시 알게 남을 걸고들지 말고 자기의 어지러운 고나 닦는것이 좋을것이다. 이것이 세상사람들이 미국에 주는 충고이다.

미국은 당시 알게 남을 걸고들지 말고 자기의 어지러운 고나 닦는것이 좋을것이다. 이것이 세상사람들이 미국에 주는 충고이다.

미국은 당시 알게 남을 걸고들지 말고 자기의 어지러운 고나 닦는것이 좋을것이다. 이것이 세상사람들이 미국에 주는 충고이다.

미국은 당시 알게 남을 걸고들지 말고 자기의 어지러운 고나 닦는것이 좋을것이다. 이것이 세상사람들이 미국에 주는 충고이다.

미국은 당시 알게 남을 걸고들지 말고 자기의 어지러운 고나 닦는것이 좋을것이다. 이것이 세상사람들이 미국에 주는 충고이다.

미국은 당시 알게 남을 걸고들지 말고 자기의 어지러운 고나 닦는것이 좋을것이다. 이것이 세상사람들이 미국에 주는 충고이다.

미국은 당시 알게 남을 걸고들지 말고 자기의 어지러운 고나 닦는것이 좋을것이다. 이것이 세상사람들이 미국에 주는 충고이다.

미국은 당시 알게 남을 걸고들지 말고 자기의 어지러운 고나 닦는것이 좋을것이다. 이것이 세상사람들이 미국에 주는 충고이다.

미국은 당시 알게 남을 걸고들지 말고 자기의 어지러운 고나 닦는것이 좋을것이다. 이것이 세상사람들이 미국에 주는 충고이다.

미국은 당시 알게 남을 걸고들지 말고 자기의 어지러운 고나 닦는것이 좋을것이다. 이것이 세상사람들이 미국에 주는 충고이다.

미국은 당시 알게 남을 걸고들지 말고 자기의 어지러운 고나 닦는것이 좋을것이다. 이것이 세상사람들이 미국에 주는 충고이다.

미국은 당시 알게 남을 걸고들지 말고 자기의 어지러운 고나 닦는것이 좋을것이다. 이것이 세상사람들이 미국에 주는 충고이다.

미국은 당시 알게 남을 걸고들지 말고 자기의 어지러운 고나 닦는것이 좋을것이다. 이것이 세상사람들이 미국에 주는 충고이다.

미국은 당시 알게 남을 걸고들지 말고 자기의 어지러운 고나 닦는것이 좋을것이다. 이것이 세상사람들이 미국에 주는 충고이다.

미국은 당시 알게 남을 걸고들지 말고 자기의 어지러운 고나 닦는것이 좋을것이다. 이것이 세상사람들이 미국에 주는 충고이다.

미국은 당시 알게 남을 걸고들지 말고 자기의 어지러운 고나 닦는것이 좋을것이다. 이것이 세상사람들이 미국에 주는 충고이다.

미국은 당시 알게 남을 걸고들지 말고 자기의 어지러운 고나 닦는것이 좋을것이다. 이것이 세상사람들이 미국에 주는 충고이다.

미국은 당시 알게 남을 걸고들지 말고 자기의 어지러운 고나 닦는것이 좋을것이다. 이것이 세상사람들이 미국에 주는 충고이다.

미국은 당시 알게 남을 걸고들지 말고 자기의 어지러운 고나 닦는것이 좋을것이다. 이것이 세상사람들이 미국에 주는 충고이다.

미국은 당시 알게 남을 걸고들지 말고 자기의 어지러운 고나 닦는것이 좋을것이다. 이것이 세상사람들이 미국에 주는 충고이다.

미국은 당시 알게 남을 걸고들지 말고 자기의 어지러운 고나 닦는것이 좋을것이다. 이것이 세상사람들이 미국에 주는 충고이다.

미국은 당시 알게 남을 걸고들지 말고 자기의 어지러운 고나 닦는것이 좋을것이다. 이것이 세상사람들이 미국에 주는 충고이다.

미국은 당시 알게 남을 걸고들지 말고 자기의 어지러운 고나 닦는것이